

# Pestalozzi 의 生涯와 思想

著 者 수 현

수피아 간호 전문학교

A Study on Pestalozzi's Life and Thought

Suh, Soo Hyun

차	레
I. 머릿말	IV. 教育方法
II. 生涯와 事業	(1) 直觀의 A.B.C와 數·形關係의 直觀論
(1) 靑少年時代	(2) 勞作教育
(2) Neuhof 時代	V. 새 時代教師의 任務와 資質
(3) Stanz 時代	(1) 教師의 任務
(4) Burgdorf 時代	(2) 教師의 資質
(5) Iferten 時代	VI. 맺는말
III. 教育思想	參考文獻
(1) 人間性的 教育	
(2) 教育原理	

## I. 머릿말

오늘날과 같이 삭막한 세상에 人類는 한결같이 教育愛(Pädagogische Liebe)를 갈구한다 이를 희구하면 하드세 Pestalozzi의 教育愛와 그의 사상이 더욱 사무치게 흥모하게 된다.

그가 1827年 2月 17일에 유명을 달리 하였으니 今年은 148주기년이 되는 해가 된다. 참된 人間이요, 偉大한 人類의 教師이신 敎聖 Pestalozzi 先生님을 想念하면서 글을 쓴다.

무릇 모든 思想의 이해가 그러하듯이 Pestalozzi의 思想도 그 時代의 背景과 關聯에 對한 날카로운 分析이 없이는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다.

當時의 歷史는 中世以來의 낡은 인습과 傳統, 社會制度, 人生觀, 世界觀이 文藝復興(Renaissance) 및 宗教改革(Reformation)의 巨步를 내어던어 새로운 方向으로 指向하는 18世紀 啓蒙時代의 大氣를 호흡하게 되었다.

Schlegel은 이 時代를 가르켜 佛蘭西 市民革命, Goethe의 詩, Kant의 哲學으로 代表된다고 하였다.

近世文化의 태동이 바야흐로 약동하는 18世紀 중턱에 탄생한 Pestalozzi야 말로 사람이

마땅히 서야할 좌표를 찾는 革命속에서 活動을 눈물겹게 하였다. 또한 人間의 깊은 心魂의 告白을 通하여 眞성을 구현하는 Goethe의 詩속에서 成長하였고, 「人間을 手段으로 다루지 말고 目的으로 尊重하여야 한다」는 Kant의 哲學을 基盤으로 해서 그의 教育思想은 날로 發展시키었다. 그의 全生涯를 祖國의 將來와 人類의 幸福을 위해 몸을 받쳤고 明日의 밝은 社會를 建設하기 爲하여 온갖 努力을 傾注하였다. (1)

## II. 生涯와 事業

### (1) 靑少年時代(1746~1768)

Johan Heinrich Pestalozzi는 只今으로부터 229年前, 즉 1746年 1月 12日 永世中立國인 Switzzland北쪽에 있는 Zürich에서 出生하였다.

祖父는 독실한 農村牧師이 였고, 父親은 眼科 겸 外科醫師였다. 그의 父親은 어린 5歲의 귀여운 子息을 뒤에 두고 33歲의 젊은 나이로서 世上을 떠났다. 父親은 게을리한것은 아니었지만 世上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유산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侍女들에 의해 成長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잘 타고 겁이 많으며 낭만적이고 非現實的이 였다. 祖父의 感化力은 놀라운만한 것이어서 그는 처음에 牧師가 될려고 神學校를 다니였으나 天性의 풍부한 감정의 所有者이었던 關係로 딱딱하고 억세며, 外面的이고 形式的인 것은 전혀맞지 않아 神學校 課程을 마치지 못했고, 후에는 法律家가 되려고 Zürich의 작은 大學講義室에서 健康을 해치도록 研究했다.

그는 弱한 몸을 恢復시키기 위하여 1768年 뮌헨에다 土地를 사서 田園生活을 始作하였다. 거기서 Rousseau의 教育小説인 소위 「아동의 福音書」 Emile((1762年)을 탐독하고 많은 感化를 받게 되었다.

1768年 10月 30日에 Pestalozzi는 8歲나 年上者인 Anna Schulthess(1768~1815)와 結婚을 했다. 이때 新郎의 나이는 23歲이고 新婦는 31歲였다. 그동안 두 사랑하는 사람의 戀書는 무려 500餘通이 있었는데 그 중에 新郎이 新婦에게 보낸 것이 300餘通이었다. 이 500餘通의 연서는 「Pestalozzi 全集」에 收錄되어 그의 情熱을 엿볼수 있다. 社會的 經濟的으로 어울리지 않은 이 두 부부의 結合은 神의 섭리랄 수 밖에 없다.

### (2) Neuhof 時代(1768~1798)

Pestalozzi는 1770年 長男 Hans Jacob을 보았다. 이름을 Jacob이라고 作名한 것도 그가 崇拜하는 Rousseau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Jacob을 相對로 3歲半까지 觀察한 것을 育兒日記(Tagebuch über die Erziehung seines Sohnes)로 남겼는데 이것이 最初의 兒童心理學에 關한 科學的인 記錄이며 兒童

(1) 서수현, 페스탈로찌(전남교육 1971. 2월호) pp.120-121.

研究에 있어서 日記法의 효시인 것이다.

이 觀察을 통해서 그는 事物의 教育이 言語의 教育보다 先行되고, 보고, 듣고, 行하는것이 判斷이나 推理보다 先行한다는 것을 理解했다.

그는 새로 산 땅위에 새家庭의 보금자리를 짓고 그곳을 “Neuhof”라고 불렀다. “Neuhof”는 “새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의 農業經營은 여러가지 事情에 의하여 失敗하였고 방직사업에도 재미를 못보았다. 그는 한때 심한 落膽속에 굴러 떨어진 때도 있었다. Pestalozzi의 순결하고 尊貴한 愛情과 努力은 모든 고난의 試鍊과 싸워가며, 조금도 굽히는 일이 없었다.

1774년에는 50餘名の 缺食兒를 모아서 貧民學院 (Armenanstalt)을 개설했다. 數는 날로 증가하여 1778년에는 男女 90餘名에 되었으나 보기드른 凶年을 當하여 이 事業도 經濟的으로 一大危機에 直面하여 1780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 Pestalozzi가 만든 貧民學院은 단순한 孤兒施設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人間으로서의 自覺을 촉구하는 人間學校(Menschenschule)였다.

이로부터 文筆生活로 들어가 겨우 生活의 危機를 免할 수 있었다. 特히 그의 教育思想을 잘 表現한 著書로서 「隱者の 黃昏」(Abendstunde eines Einsiedlers)(1780年)과 「Lienhard und Gertrud」(1781)같은 名著가 이 때에 著述한 것이다.

Ephemeriden 誌 5月號에 發表한 「隱者の 黃昏」은 단편적인 잠언집으로서 그 가운데는 Pestalozzi의 教育觀과 정연한 教育論이 넘쳐흘러 全篇 189개의 소절로 되었다. 實로 이 저서는 그의 教育思想의 本質이 담겨져 있다.

“人間은 높은 王座에 앉았거나 낮은 草家지붕 밑에서 살거나 그 本質에 있어서는 平等하다.”<sup>(2)</sup> 이것은 「隱者の 黃昏」의 서두에 나오는 글이며 同時에 教育의 根本思想을 단적으로 表現한 名言이다.

이 저작에 담겨져 있는 根本思想은 家庭이라는 하나의 生活의 中心點을 核으로 하고, 층을 이루며 擴大하여 가는 生活圈 (Lebenskreise)의 思想이다. 그의 하나 하나의 命題는 직선적인 推論과는 달리 하나의 보금자리 即 自己→家族→信仰→社會→國家로 擴大되면서 信仰을 中心으로 하는 關係가 이루어 진다. 또한 그 基調는 깊은 信仰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人間 本質의 平等, 合自然教育의 原理, 家庭教育의 重要性, 基督教的인 家父長 질서의 부활, 信仰에 의한 人類의 共同運命體의 自覺 등에 있다.

그리고 “Lienhard und Gertrud”는 小說形式으로서의 저서로서 人間이 社會惡으로 因해 타락은 하나, 人間이 本來에 가지고 있는 天性으로 말미암아 婦人 Gertrud의 努力으로 男

(2) 金善陽, 金丁煥共譯 페스탈로찌 · 서울: 耕智社, 1968 p. 33.

便 Lienhard 와 鄉里의 타락을 救濟할 수 있다는 즐거이다.<sup>(3)</sup> 卽 이 小説은 “가난에서의 解放과 酒幕으로 象徵되는 惡의 根絶”이 二大主題를 이루었다.

그는 이것을 兩面으로 다루었다. 먼저 平和롭고 질서있는 家庭이 확보됨으로써 家庭教育이 즐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教育이 內部로 부터의 人間의 啓發이라면, 政治는 外部로 부터의 人間의 改造이다. 教育과 政治는 「內·外」란 差異는 있지만 人間을 만든다는 뜻에서는 같은 機能이라고 Pestalozzi 는 여긴 것이다.

이 저서가 出版된 後부터 그의 名聲은 世上에 널리 알리어 졌다.

“自己가 萬一 自由의 몸이라면 그를 찾아가서 全人類의 이름을 代表하여 感謝를 드리고자 한다”고 獨逸의 루이제 王后가 獨白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 (3) Stanz 時代(1798年)

1798年 佛蘭西軍과 瑞西軍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다. 이 戰爭으로 갑자기 戰爭孤兒가 急增했다. 政府는 그를 保育院의 한 관리자로 任命했다.

Pestalozzi 는 校舍도 없고 教科書도 없는 곳에서 다만 정의와 정열로서 教育을 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일찌기 일어났고 잘 때는 제일 나중에 잤다. 그는 孤兒들이 먹다 남은 빵과 국물로서 生存했던 것이다. 孤兒들이 울 때는 더불어 울었다. 그는 몇번이고 各월을 하고 쓸어졌는지 모른다. 그는 피어린 生活經驗에서 勞作教育의 崇高性和 實踐性을 깨우쳤던 것이다.

1799年 Stanz에서 쓴 Pestalozzi 의 便紙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담겨져 있다.

“We wept and smiled together, they forgot the world and Stanz they; only knew that they were with me and I with them. We shared our food and drink. I had neither family, friends, nor servants, nothing but them. I was the last to go to bed, and the first to get up in the bedroom. I prayed with them, and at their own request, taught them till they fell asleep.”<sup>(4)</sup>

진정 stanz에 있어서 Pestalozzi 는 孤兒의 아버지요, 孤兒의 어머니요, 孤兒의 스승이요 孤兒의 벗이요, 孤兒의 醫師요, 심지어 고아의 사환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도 없이 전세가 不利하여져서 이 배움터는 戰爭病院으로 使用하게 되어 閉鎖되었다. 비록 6개월 동안이란 짧은 時間이지만 이곳의 아동들은 참 人間을 배웠던 것이다. 이들의 작은 가슴에는 Pestalozzi 의 따스한 性品과 勞作教育의 열과 실현이 永遠한 마음의 확인으로 찍히고 또 찍혔던 것이다.

고아원 活動에서 주목할 그의 教育原理는 教育을 生活과 關聯시키고 學習을 勞動과 관련

(3) Pestalozzi, Linhard and Gertrud 1781, Teil J-IV.

(4) Pestalozzi, Letter on His work at Stanz 1799.

시키고 人間教育의 큰 目標을 道德教育과 思考力(Denkkraft)도야에 둔 점이다.

Morf, H.는 “Zur Biographie Pestalozzi”(1868)에서 Stanz에서 經驗한 結果를 다음 일곱가지로 간추리고 있다.

- 1) 人間の 知識은 直觀의 知識(Anschauungserkenntnisse)이어야 한다.
- 2) 모든 教科는 아이들의 연약한 힘으로 到達할 수 있는 單純한 初步點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 3) 教育方法과 教材는 單純화, 간편화, 되어야 하며,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4) 각부분의 초보점은 충분히 연마됨으로써, 그것이 生도의 完全한 精神的 財産이 되어야 한다.
- 5) 아이들은 한 集團의 學級의 形式으로 가르쳐짐으로써 언제나 서로 배우고 活潑하게 활동토록 해야 한다.
- 6) 人間の 本性에 맞는 勞作과 유희(Arbeit und Spiel)가 적절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 7) 그림 그리기 및 글씨 쓰기는 마음대로 지우고 다시 쓸수 있는 石盤(Schiefertafeln)을 利用함으로써, 그들의 소질을 발전시켜 기술에 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sup>(5)</sup>

#### (4) Burgdorf 時代(1799~1804)

1799年 7月 Burgdorf에 있는 庶民國民學校 補助教師로 任命을 받았다. 이 庶民國民學校란 “Hintersassenschule”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地域社會에서 市民權이 없는 下層階級이 다니던 學校”를 말한다. 그는 얼마되지 않아 校長의 물어해로 그 職을 辭職하고 어느 女教師가 經營하는 市民國民學校로 갔다.

이곳에서 그의 教育的 信念이 굳어졌고, 또 그의 教育的 信條를 實踐에 옮기어 Burgdorf의 學務當局의 認定을 받아 1800년에는 Burgdorf 城을 그에게 대여되어 그는 여기에서 獨自의 學校를 열었던 것이다. 그의 名聲은 國內外로 파문처럼 멀리 퍼져 나갔다.

이에 勇氣를 얻은 그는 教育方法上的 原理를 結合하여 一卷의 冊을 出版하게 되었다. 이것이 有名한 “Wie Gertrud ihre Kinder lehrt(1801年)라고 題目한 것으로<sup>(6)</sup> 그의 親友「게르투다」에게 보낸 便紙形式으로 全部가 14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內容은 絶對로 便紙에 그치는게 아니고, 그의 심오한 教育理論을 피력한 것이다.

그內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第1信에 그는 Neuhof에서 Burgdorf의 初期까지의 自身の 生涯를 회고한다.

第2,3信은 크류저, 토프러, 부스等 그의 弟子가 그를 어떤 境遇에서 만나게 되었는가를 적고 있으며, 이들의 깊은 理解의 協力을 감사하고 있다.

第4,5,6信은 그의 教授法에 關한 一般的인 原理를 소개하고 있다. 즉 人間の 知識獲得

(5) morf H, Zur Biographie pestalozzils, Bd I. 1868, s.125.

(6) Pestalozzi, Wie Gertrud ihre Kinder lehrt, 1801, R. VI.

의 과정을 탐구하고, 다음은 事物認識과 教授法과의 關係를 논하고 있다. Pestalozzi에 依하면, 모든 事物은 名·數·形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教授는 이 세 側面의 基本的인 힘을 도야시켜 주는 言語(Sprache), 數(Zahl), 形(Form)을 重疊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要素分析的인 教授法의 탐구는 教育內容의 系列(Sequence) 教育內容의 範圍(Scope)를 확정함으로써 學習者 스스로가 自己에 맞는 速度로 自學自習 할 수 있게 教案을 撰짓은 오늘날의 program 學習乃至 教育工學의 先驅的인 役割을 한것이라 볼 수 있다.

第7,8信은 개개의 教授領域에 위해서 말한 一般의 原理를 適用시킨 것이다. 學生이 “測定요소”함으로써 特得해야할 “形의 直觀”(Anschauung der Formen)의 教育이라던지 “數의 直觀”(Anschauung der Zahl)을 論하고 있다.

第9信은 直觀이 認識의 絶對的인 基礎임을 力說하고 있다. 이 直觀에 호소하는 方法은 知的領域을 넘어 身體의 道德的領域에도 擴張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第10信은 이런 直觀 教授法의 原理에서 유도되는 몇개의 結果를 考察하고 있다.

第11信에서는 그가 發見한 이런 “方法”(methode)이 人類를 救援하는 手段임을 확신해 마지 아니 하였다. 그는 많은 事業을 해왔으나 屢번히 失敗했다. 그런데 神은 그에게 새로운 教授方法을 發見케 함으로써 그를 人類救援에 참여케 한것이다.

第12信은 당시의 學校教育에 대한 批判이다. 언어와 知識의 教育이 全部일 수는 없으며, 기술과 기능도 同時에 必要하며, 이론과 더불어 實踐도 그에 못지않게 重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13,14信은 이 저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른바 道德教育을 論하고 있다는 여기에서 Pestalozzi는 여기에서 아동의 道德的, 宗教的, 發達을 論하며, 이것이 “自身의 全體系의 礎石”이라고 말한다.

宗教的, 道德的 發達의 基礎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發見된다. 그가 얼마나 母性의 의무를 偉大하게 존엄하게, 그리고 神聖하게 그려냈는지, 우리는 그의 글에 깊은 感動을 느낀다. 아마 家庭의 福된 분위기를 그 만큼 잘 그려낸 사람은 드물 것이다.<sup>(7)</sup> Burgdorf 時代는 Pestalozzi에 있어서 그의 生涯를 통하여 가장 幸福한 시기였다.

##### (5) Iferten 時代(1805~1827)

1805년에 Iferten 市의 초빙으로 그곳에 學校를 設立하고 1825년까지 계속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우수한 사상과 원숙한 기술을 발휘하여 國內는 勿論 全世界의 각광을 받아 이 市는 마치 教育者의 巡禮地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實로 Pestalozzi의 教育說은 당시 獨逸의 教育界를 支配하고 나아가 全世界 教育界에 至

(7) 金丁煥, 페스탈로찌의 生涯와 思想. 서울: 博英社, 1975, pp.129-134.

大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Pestalozzi는 新教育의 福音(Evangelium der neuen Erziehung)의 唱道者요, 民衆의 子女를 合自然的으로 教育을 시킴으로써 國民大衆의 教育을 實現시키고 나아가서 社會改革의 일꾼들을 만들어 내어, 理想社會를 建設코자 하는 의욕이 冲天했다.

이런 모든 成巧의 基盤은 學理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信仰에서 나왔다는 것, 그 信仰은 사랑을 礎石으로 한다는 것, 그러기에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特異한 點이 있다.

그는 1808年 2월에 친구 슈타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의 一節을 보기도 알 수 있다.

“그것은 나의 事業이 아니고 하나님의 役事였습니다. 나의 事業이란 그것을 갈구한 사랑 뿐이었습니다.”<sup>(8)</sup>

(Es ist nicht mein werk, Es ist Gottes werk; mein war die Liebe, mit der Ich suchte.)

Iferten 學園이 興성해 지자 그는 갖가지 教育問題에 對한 뚜렷한 獨自的인 見解를 밝힘으로써 識者들에게 教育에 對한 指針을 제시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目的下에 生진 것이 週報(Wochenschrift)이다.

이미 Burgdorf 時代에도 그는 “教育學雜誌”(Pädagogische Journal)의 創刊을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바 있었다. 새로 나올 이 週報는

“時代的 制限을 갖는 學術的 文化 乃至는 여러 모습의 特殊文化를 떠나서 人間의 本性과 그 存在의 不變的 條件속에 직접 터잡는 教育手段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이 주보는 1책에 16페이지 짜리고 隔週로 發刊된 것으로, 1807年 5월에 創刊號가 發送되었다. 첫해에는 예정대로 15책이 나와 이것이 第1 卷이 이루어졌으나, 1809年 以後에는 격월 에 한책씩 發刊할 豫定이 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1912年까지 겨우 5冊을 發刊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當初에 기대했던 취지 효과와는 달리 이 週報는 1812년에는 廢刊이 되었다.

이 週報의 刊行은 成功的인 것은 아니었으나 Pestalozzi의 평생의 教育事業에 寄與하는 貴重한 研究報告가 많이 담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갖는 것이다.

이 中에서 중요한 論文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 基礎陶冶을 全範圍에 관한 새로운 試圖와 形式의 主張(Aufstellung von neuen Versuchen und Formen in ganzen Umfang der Elementarbildung)

② 어머니를 爲한 數學的 直觀의 A.B.C. (Das A.B.C. der mathematischen Anschauung für Mütter)

(8) Morf H, Zur Biographie Pestalozzis, Bd, IV, 1889, S.59.

③ 學校 및 家庭에서의 教授·教育의 改善에 對하여, (Über unterrichts und Erziehungsverbesserungen in Schulen und Haushaltungerr)

④ 페시탈로찌적 唱歌 教育論 (Die Pestalozzische Gesangbildungslehre)

⑤ 人間陶冶와 언어에 關한 聽覺의 意味에 對하여 (Über den Sinn des Gehörr in Hinsicht auf Menschenbildung durch Tan und Sprache)

⑥ 基礎陶冶의 理念 및 Iferten의 Pestalozzi 學園에 있어서의 그 實踐原則 等이다. (Über die Idee der Elementarbildung und den Stand punkt ihrer Anführung in der Pestalozzischen Anstalt in Iferten)

마지막의 基礎陶冶에 關한 論文은 1809年 8月 30日과 31日 兩日에 걸친 端西教育會에서 그가 行한 필생의 강연을 修正하여 제제한 것이다.

이런 論文題目에서 보듯이 Pestalozzi는 教育의 全領域 즉 唱歌 地理 歷史 國語 教授 理科 體育 宗教 教育哲學等에 걸쳐 일가견을 갖는 뛰어난 教育學者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點에서 終來의 Pestalozzi의 研究는 教育哲學, 教育方法, 原理等에 焦點이 놓이 巨視의인 것이었으나 近來에는 Pestalozzi의 다른 側面, 즉 數學教育, 地理教育, 音樂教育, …등 教科教育學的(Fachdidaktik)側面에서 微視의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은 多幸스러운 일이다.

人生의 夕陽이 가까왔다. 그러나 老齡을 잇고 末년에 보다 充實한 教育을 履行하러 하였으나 親舊와 弟子들 사이에 對立과 軋轢으로 마침내 學校의 문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危機에 그를 46年동안의 寒飢같은 困難속에서 內助해 왔던 Anna夫人이 1815年 12月 11日에 男便보다 먼저 속세를 떠나 樂園으로 가버렸다.

슬픔과 고적에 젖은 Pestalozzi는 80을 바라보는 老驢를 이끌고 옛터 Neu Hof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면서 회고록 “白鳥의 노래”(1825年)(Schwangengesang)를 執筆했다.<sup>(9)</sup>

이 저작의 처음 부분은 그의 自叙傳의 生涯의 회고이고, 뒷부분은 그의 教育論의 總整理이다. 그는 여기에서 自然的인 內部로 부터의 發展과 기술적인 外部로 부터의 教導라는, 教育이 지니는 두個의 對立계기를 「生活이 陶冶한다」(Das Leben bildet)라는 標語로 統一한다. 여기에서 부터 “活動하면서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新교육의 方法論理가 탄생했다.

1827年 2月 17日 드디어 이 偉大한 스승, 人類의 教育者인 教聖 Pestalozzi는 人生의 기나긴 行程과 같은 路程에 終來의 幕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 그의 遺言을 이어본다.

「내 遺骸로 하여금 내 敵에 對한 無制限한 激情을 沈靜케 하고, 내 最終의 呼訴가 저들을

(9) Pestalozzi, Schwangen gesing (1825), R. VIII, S. 284.



움직여서 平靜과 品位와 禮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대하게 行하도록 해 주소서.

내가 지금 들어가는 平和 속으로 그들 역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나는 그들의 모든 일을 容恕하노라, 이제, 저들이 내 親舊이니 내 저들을 祝福하고 저들에게 바라는 바는 저들이 사랑 속에서 먼저 떠난 者를 回想하고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一生의 事業을 저들의 最善의 힘을 다하여 促進함이다.」<sup>(10)</sup>

「Möge meine Asche die grenzenlose Leidenschaftlichkeit meine Fernde zum Schweigen bringen und mein letztes Ruf sie bewegen, zu tun, was rechtens ist, und mit Ruhe würde und Anstand, wie es Männern geziemt! Möge der Friede, zu dem ich eingehe, auch meine Feinde zum Frieden führen! Auf jeden Fall verzeihe ich ihnen; meine Freunde segne ich und hoffe, daß sie in Liebe des Vollendeten gedenken und seine Lebenszwecke auch nach seine Tode noch nach ihren besten Kräften fördern werden.」

이렇게 하여 그는 Neuhof에 가까운 Brugg에서 永眠했다.

그리고 오랜 時日이 흐른뒤에, Pestalozzi의 誕生 永週年이 되어, Birr의 언덕에는 하나의 墓碑가 세워졌다.

墓碑의 한가운데에는 Pestalozzi의 胸像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그의 教育活動을 담은 그림이 담겨 있고, 胸像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碑銘이 새겨졌다.

여기에 편히 쉬다.

Hier Ruht

하인리히 페스탈로찌

Heinrich Pestalozzi

1746년 1월 12일 취리히에서 태어나

geboren in Zürich am 12. Januar 1746,

1877년 2월 17일 부르그에서 죽다.

Gestorben in Brugg den 17. Hornung 1827.

노이호프에서는 貧民의 救援者.

Retter der Armen auf NeuhoF

「린할트와 겔트루우트」에서는 民衆의 說教者,

Prediger des Volks in Lienhard und Gertrud.

슈탄쓰에서는 孤兒의 아버지

Zu stanz Vater der Waisen.

블크돌프와 뮌헨브호제에서는 새로운 民衆學校의 創設者.

Zu Burgdorf und Münchenbuchsee.  
Gründer der Neuen Volksschule.

이펠당에서는 人類의 教師

in Iferten Erzieher der menschheit

人間, 基督者, 市民,

Mensch, Chist, Bürger

모든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Alles für andere, für sich nichts.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10) Natorp, P; Pestalozzi sein Leben und serne ideen. (1919) p.34.

祝福있을 지어다 그의 이름위해!

Segen Seinem Namen!

그리고 이 표비 밑에는

“우리들의 아버지 Pestalozzi 를 爲하여 感謝한 마음으로, 일가우 州民들이”.

라는 獻辭와 날자가 박혀졌다.

지금까지 Pestalozzi 의 生涯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면 그의 삶의 意義는 무엇일까? 그의 生涯는 한마디로 피로움에 찬 것이었고, 絶望으로 부터의 不斷한 更生이었고, 빛과 사랑을 求하는 信仰이었고, 自身の 限界에 挑戰하는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Pestalozzi 는 우리와 呼吸을 같이한 약한 人間이로되 우리와 다른 點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리만큼 그는 自身の 온 삶을 하나의 目的, 具體的으로는 教育을 통한 人類의 救援을 위하여 燃燒시켰다는 點이다.

그의 삶의 燃燒가 남긴 客觀的인 功績은 Spranger 가 Pestalozzi 의 逝去 百週年 記念으로 1927年 2月 18日 Zürich 大學에서 行한 講演에서 結論으로 들은 세가지가 가장 正鵠을 뿜었다. (11)

첫째로 “Pestalozzi 는 民族을 發見했다”.

그는 民族속에서 民族과 더불어 살고, 民族의 困窮을 自身の 곤궁으로 느끼고, 民族의 幸福을 自身の 幸福으로 여기고 民族의 結핍을 理解하고 그것을 克服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둘째로 “Pestalozzi 는 참된 國民教育에 대한 偉大한 思想을 철저히 다졌다”.

그 自身“나는 國民教育의 分野에는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할 빛을 주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一般的인 國民大衆教育이 없는 限, 各階層 各個人을 위한 教育은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내다보고 있다. 그의 더욱 偉大한 點은 이 國民教育을 學校教育의 테두리에서뿐 아니라, 家庭教育, 職業教育, 社會教育, 宗教教育으로 까지 擴張시켰다는 點이다.

셋째로, “Pestalozzi 는 永遠속에 있는 生の 모든 領域은 활기찬 人間의 魂에 人間의 魂은 사랑에, 그리고 또한 사랑은 神에 비롯함을 發見했다”.

知識, 技術, 經濟, 學問等은 人間의 幸福을 위한 것이고, 人間의 幸福은 이웃에 대한 사랑, 自然에 對한 사랑, 民族과 國家에 대한 사랑, 人類에 대한 사랑을 위한 것이며, 이 사랑은, 歷史의 進展, 宇宙의 完成, 神의 뜻의 具現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는 個人, 社會 民族, 國家, 人類가 하나의 引力圈에 질서정연하게 전진하는 合目的인 世界觀을 定立하고, 이를 위한 教育의 고유한 役割을 論했다.

民族의 統一, 福祉社會의 建設, 自由民主主義의 實現이란 歷史的 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 韓國教育은 Pestalozzi 의 理念과 思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示唆받아야 할것 같다.

11) Spranger, E. Pestalozzi's Denkformen, Heiderberg Quelle und meyer, 1906, SS. 27-29.

### Ⅲ. 教育思想

Pestalozzi의 教育에 關한 思想 및 實際는 당시 一般民衆을 그 卑賤한 狀態에서 解放시키고 人間性을 안겨준다는 理想에서 出發하고 있다.

그리고 이 社會改造는 政治的, 經濟的 革新에서 期待할 수 있겠으나, 根本的으로는 人間性을 啓發하고 自助의 精神과 實力을 養成하여 自主性을 갖게 하는 人間教育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教育의 궁극적인 目的은 모든 個人에게 보다 幸福하고, 보다 道德的인 生活을 주는데 있다.

그의 教育論(von der Erziehung)에서 教育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定義하였다<sup>(12)</sup> 즉,

“生活하는것, 自己身分 안에서 幸福받게 되며, 自己주위에 쓸모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人間の 使命이다. 이것은 또한 어린이들을 教育, 向上시키는 目的이기도 하다.

(Zu leben, in seinem Stand glücklich zu sein und in seinem Kreis nützlich zu werden ist die Bestimmung des Menschen, ist das Ziel der Auferziehung der Kinder.)

“그러므로 手段과 方法을 모색하여, 모든 어린이가 自己 處地안에서 自然스럽고 손쉽게 기능, 감각, 판단, 기호를 터득하고 이것을 통하여 自己 身分안에서 幸福하게 살면 自己 처지 안에서 社會의 有益한 구성원이 되게 하라. 이것이 모든 教育의 基礎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個人的 모든 能力을 調和있게 發達시킬 必要가 있다. 그는 아동을 그 內在的인 生活을 一定한 法則에 따라 전개 시키는 有機體로 보았다. 要는 教育이란 自然히 움터 나오는 힘(der Kräfte der Natur)을 自然의 法則(der Gesetze der Natur)에 맞추어서 가장 바람직하게 키워 나가는 영위라고 본 점이다.

이로써 그의 教育思想의 根本原理는 合自然(Naturgemässige)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1) 人間性的의 教育

Pestalozzi는 「너의 깊은 마음에 眞理를 向한 啓示가 있다」고 確信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려진 孤兒들은 한때 뭍고 教育을 精進할 수 있었던 것이다.

科學, 技術時代에 살고 있는 現代人에 切實히 요청되는 面은 우리의 教育으로 하여금 잃었던 人間の 生을 恢復시키는 教育的 對策의 모색이다.

지금 歐美各國에서는 그들의 지난 날의 教育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모습으로 自我 批判함으로써 文明의 前進과 발맞출 것을 試圖하고 있거니와 그 많은 批判의 소리 가운데

(12) Pestalozzi, von der Erziehung 1782, R. IV. S.324.

서 가장 많은 共鳴을 情緒教育을 바탕으로 하는 人格의 陶冶面이 소홀이 되고 있다는데 모으고 있다.

Uliche 같은 이는 “오늘의 教育이 젊은 世代를 보다 强하고 均衡잡히고 同時에 道義적으로 보다 敏感한 人格者로 길러내는데 失敗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勿論 이같은 面에 對한 指摘은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은 아니다.

일찍이 Pestalozzi 는 人間性 教育을 強調하여 「우리에게는 글쓰기 學校와 文答學校가 있을 뿐 참다운 人間性을 길러낼 수 있는 人間學校(Menschenschule)가 없음을 개탄하여 人間學校 建設을 爲한 많은 努力을 傾注했다.

그는 教育의 目的을 「人間性(Menschentum)의 調和的 發達」에 두고 「道德이 人間性의 調和的 發達의 主調音」임을 강조하여 人間精神의 內向力의 啓發에 盡力해 온 것이다.

이런 Pestalozzi 의 教育目的은 現代教育의 課題인 教育의 人間化問題와 直結된다. 그러면 教育의 人間化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3)

그것은 個人的으로는 人間이 人間답게 살 수 있는 精神的 內面的 態도와 資質을 갖추게 하여주는 일이며 社會적으로는 모든 人間이 個性과 創意性을 가지고 보람있게 자자의 社會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게 人間性을 안겨 주는 일이다.

教育이 機械化, 大衆化되면 될수록, 또 한편으로는 教育이 人格化, 個性化되어야 한다는 Paradox 가 여기에 있다.

教育의 人間化에 대하여 Spranger 는 “人間性에로의 教育”(Erziehung zur menschenlichkeit, 1964)이라는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具體的인 構想을 밝히고 있다.

그는 “文化的 毒素”에서 人間을 保護하고 순수한 人間性을 발르시키기 위하여는 아이들을 孤島로 보내어야 하나, 그럴수 없으므로 農村에 아이를 보냈노라한 “Emile”에서의 Rousseau 의 소극적 태도를 批判하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疾風怒濤의 世界에서 어린이에게 道德教育을 시켜야 한다면서 그 主된 目標은 ① 뚜렷한 自我意識을 갖게하며, ② 自身의 生命을 존중하고, 그 自身을 客觀적으로 認識評價케 하고, ③ 各者가 확고한 價値規範을 가짐으로써 良心의 命命에 의하여 自律적으로 行動케 하며, ④ 自身의 영혼을 救援하기 위하여 宗教的인 것에 志向케 해야 하며, 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며, 奉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論한다. (14)

教育의 人間化의 궁극의 目標은 要는 自身의 生命을 사랑하며, 다음에 이웃을, 民族을, 國家를, 人類를, 人類의 歷史를, 宇宙의 萬物을 사랑함으로써, “宇宙의 完成”에 사랑으로 參與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13) 金丁煥, 教育의 哲學과 課題, 서울: 博愛社, 1974, pp. 253-256.

(14) Edward Spranger, Pädagogische Perspektiven, (Heiderberg: Onelle und meyer, 1964, SS.122-139.

그러기에 Pestalozzi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自然性을 人間性으로 높여주는 단 하나의 그리고 영원한 教育의 基礎이다.”<sup>(15)</sup>라고 했다.

“사랑은 땅위의 모든 것을 맺어주는 유대이다. 사랑은 하나님과 人間과의 유대를 주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人間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이외에 人間에게 무엇이 必要하단 말인가?

(Liebe ist das Band, das Erdkreis verbindet. Liebe ist das Band, das Gott und menschen verbindet. Ohne Liebe ist der Mensch ohne Gott, und ohne Liebe, was ist der Mensch?<sup>(16)</sup>)

라고 갈파했다. 人間教育은 이런 사랑의 教育으로 完成된다는 것이다.

要는 Pestalozzi가 강조하는 人間性은 人間精神의 根本적인 힘, 또는 內面的인 힘을 뜻한다. 過去의 教師는 外部의 充實에서 內部的 充實으로 옮겨졌는데 그는 人間の 內部에서 外部에로 흘러 넘치는 순수한 人間の 培養에 盡力했던 것이다.

## (2) 教育原理

Pestalozzi의 教育思想을 一貫한 根本原理는 合自然(following with nature)이라는 것이다. 이 自然은 Comenius(1592~1671)의 客觀的 自然主義(Objective Naturalism)는 아니고 Rousseau(1712~1778)가 주장한 어린이는 生來的으로 착한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가진 천부의 能力과 소질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開發하도록 지도하는 主觀的 自然主義(Subjective Naturalism)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Rousseau의 그것과 같이 “歷史的, 社會的文化를 內容으로 하고 發展하는 人間性” 그것이다.

이와같은 人間性에 適合한 것이 소위 “合自然”인 것이다. 이와같은 合自然의 原理에 따르는 教育에 의해서만 內部的의 調和的 發展이라는 教育의 理想을 實現할 수 있다.

Fancherre의 Pestalozzi 教育論 概要(Abriss der Erziehungslehre Pestalozzi)에서 그의 教育學의 八大原理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sup>(17)</sup>

### ① 自己創造의 原理(Das Selbstschöpferische Prinzip)

Pestalozzi는 人間成長의 法則을 人間體力의 內的發展충동으로서 숭고하게 또는 永遠히 人間自身위에 있다”고 함은 教育이란 人間이 先天的으로 지니고 나온 素質을 자기스스로가 發展시킬 수 있게 하는 즉 自發性(Spontaneity)의 原理의 實踐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自律性, 自發性, 興味, 自己發展이 증시되어야 한다.

(15) H. Pestalozzi, Am Neuharstag (1809) S.361.

(16) Pestalozzi, Lienhard und Gertrud, Ersk Teil (1781) S.153.

(17) Henry Faucherre; Abriss der Erziehungslehre Pestalozzi's, Basel; Buchdruckerei des V.S. K., 1933, Ss. 17-35

## ② 教導의 原理(Das Prinzip der Führung)

教育이란 확고한 하나의 方向을 向하여 아동 스스로가 견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아동이 憧憬해야 할 理想의 人物로서의 標的과 이것에 이끄는 過程 및 그곳을 向하여 걸어가는 學習者自身の 意志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이 셋중(義를 代表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方法), 그리고 아동의 自發的인 活動(意志))의 하나가 빠져도 教育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淘汰의 原理(Das Prinzip der Auslese)

이것은 좋은 점을 서로 배우고 나쁜점은 서로 是正하여, 서로가 힘을 모아 하나의 問題를 풀어가며 나아가서, 協同精神을 育成하여 理想의 社會를 實現코자함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理念은 社會連帶感과 相互依存性의 育成을 통한 運命共同體意識의 각성이다.

## ④ 基礎陶冶의 原理(Das Prinzip der Elementarbildung)

基礎가 되는 科目은 철저히 해야 한다. Pestalozzi는 이런 科目으로서 특히 세가지를 드는데, 그 첫째는 論理的인 思考力을 訓練시키는 算教(Zahl), 둘째는 空間的인 感覺을 도야시키는 圓形學(幾何學, Form), 그리고 셋째로 한 民族의 傳統과 思想이 압축되어 담겨져 있으며 意思소통의 매개이기도 한 國語(Sprache)를 든다.

## ⑤ 內的直觀의 原理(Das Prinzip der innern Anschauung)

直觀(Anschauung)이란 직접 事物을 본다는 뜻이다. 直觀을 Comenius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感覺器官을 통하여 外部의 事物에 關한 具體的인 組織을 얻는다는 意味이고 言語나 文學에 의한 教育대신에 實物로 教育을 행하는 實際 教育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Pestalozzi의 直觀教授는 Comenius의 그것과도 區別되는 獨特한 意味를 가졌다. 그가 말하는 直觀은 단순한 감각적 인상을 뜻하는 知識의 획득, 뿐만이 아니고, 道德 宗教의 直觀까지도 가르키는 넓은 意味로 使用한다. 즉 受動的 또는 外的直觀을 能動的 또는 內的直觀인 것으로 전환시켜져 그것에 獨特한 教育的 意味를 부여하였다.

Natorp는 이러한 Pestalozzi의 直觀을 「完全한 內面化」라고 불렀다.

Pestalozzi는 폭 넓게 “生活이 陶冶한다”(Das Leben bildet)는 命題를 實現하는 手段으로서 直觀을 내세웠던 것이다. 즉 直觀을 모든 인식의 絶對的인 기초로 생각하고 教育의 本質을 여기에서 찾아왔다.

## ⑥ 여러 힘의 調和·均衡의 原理(Das Prinzip der Harmonie oder des Gleichgewichtes des Kräfte)

人間에게는 先天的으로 세 가지의 基本的인 人間性의 힘의 싹이 깃들어 있다. 道德的(Herz) = 倫理的인 힘, 知能的(Kopf) = 精神的인 힘, 및 身體的(Hand) = 技能的인 힘, 이 이것이다.

教育의 세힘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調和的으로 發展시키는 일이 곧 全人的 發達(all

round development)이다.

이것이 教育上的 3H로 3R'S과 對立하는 것으로 그 基本的인 힘은 道德的인 힘이 中心이 된 말할 나위도 없다. 心情陶冶에 의하여 道德的 理想을, 知力的 陶冶에 의하여 理想實現의 合理的 方法을 세우며, 技能의 도야에 의하여 그것이 實行에 옮기게 된다.

특히 그가 그때까지 等閑視하였던 機能의 힘을 중시하여 勞作과 산교육을 직업도야 이상으로 一般陶冶의 手段으로 인정한 點은 教育史上 特記할 點이다.

#### ⑦ 個性과 社會性과 調和의 原理(Das Prinzip der Individualität und Gemeinschaft)

個人 하나하나 道德으로 完成되어야 社會가 올바르게 나아가며, 또한 社會는 이런 個人의 創意的인 活動의 參與를 通해서만 前進을 이룩할 수 있다. 個人과 社會는 絶對로 統制服從등의 主從關係에 놓여서는 안되며, 協同의 關係에 있어야 한다.

Pestalozzi는 人間의 家庭의 關係는 自然的關係의 最初요, 또 가장 우수한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家庭은 순수한 自然的 陶冶의 기초라고 생각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그는 家庭은 人類社會 根本的形式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應하여 教育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⑧ 親近性의 原理(Das Prinzip der Nähe)

教育은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生活圈에서 비롯하여 점차로 擴大되어 가야 한다. 그는 이 生活圈을 안방(Wohnstube)이라는 확고한 中心點을 基軸으로 하여 同心圓의으로 擴大시켜 간다. 同心圓의 첫째의 層은 家庭이요, 둘째는 學校이며, 셋째는 社會라고 생각했다.

이상이 Pestalozzi의 教育思想의 核心이다. 이렇게 보면 이른바 “새교육”의 原理가 이속에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교육”에서는 경시되기 쉬운 측면이 Pestalozzi에게는 특히 강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個人의 興味와 욕구의 最大限의 충족과 個人의 社會에의 適應面을 강조하며, 個人과 社會와의 同次元的인 相互交涉(interaction)을 通해서 個性의 實現과 社會의 進展이 이룩된다는 “公理”밑에 演繹되어 온 “새교육”의 原理中에서 몇 개는 Pestalozzi의 理念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 IV. 教育 方法

Pestalozzi의 教育方法에 있어서는 自然主義 教育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동의 本能을 教師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體罰(Körperlichen Züchtigung)보다도 協力과 同情이 訓育의 手段으로서 중요시 되었으며, 人間은 本來 發見할 수 있는 素質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教育의 任務는 內的素質의 發展을 도와주는 것이라 한다.

그가 “特殊에서 一般으로” “具體에서 추상으로”라는 教授의 原理를 樹立한 것은 아동을 羅典語의 學習에 專念시킨 당시로서는 革新的 思想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어떤 어머니라도 實行할 수 있는 단순하며, 이성적은 教育方法을 구상하는데 힘을 썼다.

Morf는 Pestalozzi의 教育方法의 原理를 다음과 같이 要略하고 있다.<sup>(18)</sup>

- ① 교수의 基礎는 直觀이다.
- ② 직관에는 언어가 결합되어야 한다.
- ③ 학습의 시기는 판단 비판의 시기가 아니다.
- ④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수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出發하여, 그곳에서 단계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맞추어 계속되어야 한다. 즉 心理學的 順序로 행해져야 한다.
- ⑤ 아동이 하나의 教材를 完全히 정신적인 所有로 할 때까지 오래 동안 머물러야 한다.
- ⑥ 교수는 發達의 過程에 따라야 하며, 결코 강의, 敎訓 전달이 되어서는 안된다.
- ⑦ 교사는 아동의 個性을 신성하게 보아야 한다.
- ⑧ 知識 및 技術의 습득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고, 精神力의 發達과 強化를 目的으로 해야 한다.
- ⑨ 知識에는 能力이, 그리고 認識에는 기능이 結合되어야 한다.
- ⑩ 敎師와 아동의 접촉, 特別히 學校 敎育은 사랑에 의하여 행해지며, 사랑에 의하여 支配되어야 한다.
- ⑪ 교수는 敎育의 目的에 순종되어야 한다.

Pestalozzi의 教育方法은 이렇게 크게는 두 줄기의 原理위에서 있다. 하나는 巨視의인 生活化, 統合化, 勞作化의 原理요, 또 하나는 微視의인 心理化, 系列化, 機械化의 原理이다.<sup>(19)</sup>

(1) 直觀의 ABC(ABC der Anschauung)와 數·形關係의 直觀論 ((Anschauungslehre der Zahl und Formen)

Pestalozzi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다 이름, 갯수, 꼴(名, 數, 形)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自然스러운 認識을 돕는 교수는 이 세 측면의 基本的인 힘을 도야시켜주는 言語(Sprache), 數(Zahl), 形(Form)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言語는 發聲·文法等을 포함하는 國語에 해당하는 것이요, 數는 셈하기를 포함하는 數字에, 形은 幾何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事物의 外的把握은 形과 數의 關係에서 찾게 되고, 이것이 言語에 의해서 內的으로 理解된다고 했다.

아동이 “測定묘사”함으로서써 더듬해야 할 形의 直觀의 敎育은 우선 가장 단순한 요소 즉 가까운 生活의 터전에 있는 直線·角등에 주의하면서 “形”을 잘 觀察하고 다음에 깊이 주의하고 이것을 目測으로 익힘으로써 눈에 보이는 여러 形을 자기의 石盤(Schiefertafeln)

(18) Morf, Zur Biographie Pestalozzi's, Bd I. SS.252-284.

(19) 金丁煥, 페스탈로찌의 敎育哲學과 敎育方法論研究(人文論集)第十七輯(1972)高麗大學校, pp.13-20.



위에 寫生시킨다. 이런 訓練은 아동의 注意力·判斷力·比較力을 단련시키는데 꼭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또한 많은 直四角形으로 세분된 직사각형표를 圖畫, 測定등에 많이 利用하고 있으며, 分數의 도입에도 유효하게 이를 活用하고 있다. 이런 方法을 그는「直觀의 ABC」라고 불렀다. 이〈직觀의 ABC〉는 다음 문장을 통하여 더욱 이해 할 수 있다. 즉,

“나는 綴字의 系列을 맞추었다. 이리하여 이 순서로 모든 책을 적어 놓았다. 나는 多樣的 方法으로 綴字와 計算의 초보를 단순한 形으로 만들려고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어린 이들은 아주 엄밀한 심리적 순서로서 초보에서 다음 걸음으로 나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끊임없이 완전하게 이해된 둘째 단계를 토대로 하여 셋째, 네째 단계에로 쉽사리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에 어린이 들에게 石筆로 글씨를 쓰게 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대신 角이나, 方形, 直線이나, 曲線등을 그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直觀의 ABC」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sup>(20)</sup>

#### 第七信

그렇게 본다면 교수의 제 1의 초보적인 수단은 우선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 「音」

이 초보적 수단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교수의 특수한 수단으로 나뉜다. 즉

1. 發音의 교수 즉 발음기관의 연습
2. 단어의 교수 즉 개개 사물에 대한 교수
3. 언어의 교수 즉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事物 및 우리들이 아는 모든 事實에 대하여 정확히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게 하는 수단<sup>(21)</sup>

다음, 인간의 모든 지식이 교수의 본성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두번째의 초보적 수단은 形이다.

#### 「形」

形의 교수는 형을 갖고 있는 사물의 감각적 인상의 의식으로 선행된다. 그리하여 그 관찰력의 본 성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수 그자체의 일정한 목적에서 抽出되어야 한다<sup>(22)</sup>

#### 第八信

지식을 획득하는 셋째의 초보적 수단은 數이다.

#### 「數」

음과 형은 몇개의 증속적 方法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명확한 觀念과 심적 獨立에까지 인도하지만 지금 이 數 또는 산수는 아무증속적인 수단이 맺어지지 않은

(20) Pestalozzi, Wie Gertrud ihre Kinder Lehrt (1801)(김선양역 경지사) p.281.

(21) Ibid, S.347

(22) Ibid S.374.

유일한 교수의 수단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다음의 점에 도달한 것이다. 즉 우리들이 우리의 方法으로 아동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에는 단지 우리가 처음 좁은 의미에 있어서 직관의 A.B.C.로 사용한 그 A.B.C.를 使用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sup>(23)</sup>

Pestalozzi는 모든 學科에 口述教授法(oral lecturing)을 주장하여 아동에게 책으로 가르치는 것과 외우게 하는 것을 反對하였다. 아동의 表現活動은 반드시 實物을 觀察하고 그것에서 얻은 印象(expression)에서 나와야 한다. 言語活動을 말이거나 글이거나 아동의 感官에 제시된 實物을 觀察하는 데서 얻게 하여야 한다.

新教授法에 Pestalozzi가 寄與한 점은 ① 實物의(real object)研究 ② 各種感覺을 통하여 할 學習의 Idea의 個人的 表現등이다. Pestalozzi는 주로 初等學校 教授에 關하여서만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訓練方法에 있어서는 종래 오랫동안 모든 學校의 특징이 되었던 嚴格한 訓練方法을 反對하고 同情과 사랑에 의한 지도를 강조했다. 그의 사랑에 의한 訓練方法은 “그의 根本思想인 教育은 成人本位도 아동을 어떤 틀에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本性을 啓發하는 것이다”라는 信念에서 나온 것이다.

## (2) 勞作教育(Arbeitserziehung)

太初에 말씀(logos)이 있는 것이 아니라 太初에 勞作이 있었다. 人間은 勞作을 통해서 참된 人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將來의 學校를 勞作學校로 보았던 것이다.<sup>(24)</sup>

當時 農民들은 農耕生活를 中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日常生活를 통한 無意圖의 模倣으로도 教育은 족했다. 그러나 이제 農村에도 家內 手工業이 침투하게 되어 農民의 아이들은 새로운 知識과 意圖의인 教育이 必要하게 되었다. 새時代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음 두가지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勞動이고, 또 하나는 節約이다.

새 學校는 그러기에 勞動學校(Arbeitsschule)인 동시에 산수학교(Berufsbildung)이어야 했다. 아이들은 배틀 위에 冊을 놓고 일하면서 工夫해야 하고, 셈하면서 思考力을 訓練받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勞動을 통해서 職業을 익히고 算數를 통해서 思考力을 익혀야 한다.<sup>(25)</sup>

人間の 참된 歷史는 高層建物보다도 戰爭터나 原始林이나 河川에서 生長하는 것을 볼 때 人間の 精神은 올바른 意味에서 營作이 基礎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곧 피와 땀이 文化創造의 根源이다. 그는 앉아서 安樂하게 教育하는 사람이 아니고 全身

(23) *Ibid* S.392-398.

(24) 金善陽, 教育史講義, 서울: 載東文化社 1964 p.160.

(25) Pestalozzi, Lienhard und Gertrud, Dritter Teil 1785, RU. S.57.

을 社會에 던졌고, 四肢는 항상 땀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 崇高한 일이 Stanz 의 가슴과 全世界人類의 심장을 마구 움직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勞作教育의 巨頭인 Kerschensteincr 는 1930년에 저술한 「勞作學校의 概念」에서 “勞作學校의 意義는 최소량의 知的素材와 最大限의 숙련 능력 및 노작의 희열과 국가, 공민적 襟情으로서의 奉仕精神에 융합함에 있다고” 勞作教育의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教育은 연필이나 백묵이나 若干의 知識으로서 그 職分을 지킬 수 없음을 Pestalozzi 는 우리에게 산 體驗으로 보였던 것이다.

## V. 새 時代教師의 任務와 資質

Pestalozzi 의 教育精神과 教育方法은 당시의 教師로 하여금 크게 자극함과 教育기술면의 인식을 絶실히 느끼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近世의 教育思想家 중에서 Pestalozzi 의 思想의 影響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 오늘날에도 教育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Pestalozzi 의 理念을 繼承發展한 곳에 나라가 성하고 教育이 성했다. 여기에는 그의 理念을 不斷히 追求하고 教育者로서 實踐을 하는 스승의 삶의 姿勢를 自己의 삶의 姿勢로 이어받아 살고자하는 많은 教師가 있었기 때문이다.

Pestalozzi 의 思想의 씨가 各國의 文化風土에 떨어져 맺은 열매는 엄청나다. 그 씨를 우리는 如何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姿勢임은 分明하다.

教育은 民族과 더불어 살며, 民族의 課題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첫째, 教育者는 民族의 永遠한 그리고 最高의 理想을 定立하여야 하며,

둘째, 教育은 한 民族의 文化遺産의 繼承層인 中産層의 育成과 그들의 精神의 陶冶에 보다 힘써야 하며,

셋째, 나아가서 한 國家안에 소의된 계층이 없게 福祉國家를 建設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役割을 遂行해야 하며,

넷째, 教育을 通해서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수행할 수 있는 새 時代를 育成해야 하며,

다섯째, 人類의 共同體 意識을 촉구하고 義와 平和의 새 世界史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間을 만들어야 하며, 끝으로, 各者가 神이 우리 各자에게 주신 天使도 homo 할 使命의 완수를 위하여 저 높은 곳을 向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일이다 라고 金丁煥 교수는 그의 著書에서 論했다. (26)

위의 같은 姿勢를 갖춘 教師는 그의 職務와 資質은 具體的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가

(26) 金丁煥, 페스탈로찌의 生涯와 思想, 울서 博英社 : 1974, p.242.

問題로 남는다.

(1) 教師의 任務

敎聖 Prestalozzi의 生涯를 살펴볼때 이에 가장 큰 공적은 “영혼속에 있는 生의 모든 領域은 활기찬 人間의 魂에, 人間의 魂은 사랑에, 그리고 또한 사랑은 神에 비롯함을 發見했다”는데 있다. 知識, 技術, 經濟 學問等은 人間의 幸福을 爲한 것이고, 人間의 幸福은 이웃과 自然과 國家에 대한 사랑, 아니 보다 넓은 人類愛에 위함이어야 한다.

새時代의 教師의 任務는 그가 처하여 있는 時代性을 充分히 認識하고, 그리고 우리 人類가 걸어 나갈 方向에 확고한 信念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서 새 時代의 教師는 道德的 價値를 기초로하는 社會를 건설하는 일을 爲하여 그 모든 教育的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文明의 조성을 目的으로 과감한 투사가 될때, 그는 비로서 새 時代에 호응하는 教師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吳天錫博士가 지적한 教師의 任務를 精神的인 面과 實際的인 外面에 關하여 포괄적인 主張에서 要約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7)

① 교사는 현재 우리 人類가 처하여 있는 時代의 危機性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이것과 對決하는 教育을 베풀어 주는 것을 教師의 任務로 살아야 할 것이다.

② 교사는 人類의 최고 이상이 도덕적 가치에 기초를 둔 民主主義的 社會질서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믿고 모든 教育적 노력은 이를 위하여 경주되어야 한다.

③ 교사의 任務는 과거 人類의 文化的 遺産을 보존하고, 다음 世代에 傳達하는 同時에 이를 토대로 하여 社會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새 文化를 創造해야 한다.

④ 교사는 社會의 뒤에서져 이를 따르며 현상을 禮讚하는 사람이 아니라 大衆의 앞에서 그 결함을 是正하고 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先驅者的 역할을 해야 한다.

⑤ 教師는 社會를 개선하는 일을 교사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믿고 이 일은 먼저 學校가 위치하고 있는 地域社會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⑥ 교사는 教育에 있어서 知識의 重要性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生活을 向上시키는 데 있어서의 수단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요, 결코 그 自體를 目的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따라서 지식의 전수를 教育의 唯一한 目的으로 삼는 종래의 觀念을 버려야 한다.

⑦ 教師는 知識의 人道化(humanization)가 자기에게 부여된 중대한 직무라 생각해야 되며,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教育의 궁극적 목표가 人格의 影響에 있다고 믿어야 한다.

⑧ 교사는 이러한 人格教育은 學校안에서 發生하는 아동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만 可能하

(27) 吳天錫, 敎職과 教師,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1962, pp. 334-335.

다고 믿고, 學校의 모든 시설과 Program 과 人員이 이를 위하여 動員되어야 한다.

⑨ 教師는 이러한 새로운 教育觀에 기초하여 敎사로서의 任務를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自身을 改善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⑩ 敎사는 지금까지의 言語의 敎師요, 敎科書의 敎사였던 主張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실천의 敎사요, 행동의 敎사가 되어야 한다.

⑪ 敎사는 사람의 尊嚴性이 어떤 무엇보다도 所重하다는 것을 믿고, 이는 모든 형식의 獨裁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⑫ 敎사는 모든 아동에게 죽은 知識보다 산 知識을 가지게 하는 것이 變化無雙한 이 時代에 적합한 教育이다 믿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自己의 길을 찾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知性을 발달시키는 일에 忠誠을 다 해야 한다.

⑬ 敎師는 科學의 發達로 말미암아 세계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사람은 相互 依存 함이 없이는 그 生命을 존속할 수 없다는 事實에 비추어 종래의 좁은 地方主義, 극단의 國家主義를 버리고 세계가 一家가 되어 다 같이 의롭게 살 수 있는 世界人으로서의 氣質을 기르는 일이 敎育의 중요한 임무이다.

敎師의 職務研究에 「일의 分析」(Job analysis)의 技術을 應用하여 綿密한 研究를 한 사람은 Charters, W.W.와 Waples이다.

그들은 全國의 公立學校에서 선발된 數千名의 敎師의 援助밑에 준비된 Check list에 記載된 여러가지 직무에 관하여 그 回數와 困難度를 Check 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1,010에 걸치는 敎師特有的 職무를 몇個의 部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있다. (28)

① 學校敎育에 包含되어 있는 敎師의 직무

a) 敎材의 敎授

b) 兒童에게 學習方法을 가르친다.

② 學校와 學級의 經營에 包含되어 있는 敎師의 職務

a) 兒童에 關한 事實을 記錄하고 報告하는데 包含되어 있는 직무

b) 兒童과의 접촉을 포함하는 직무

③ 兒童의 敎室外 活動의 指導監督을 包含하는 직무

④ 學校職員과의 關係를 포함하는 직무

⑤ 學校社會의 Member 와의 關係를 포함하는 직무

⑥ 敎職的 個人的인 向上에 關係있는 직무

(28) Charters W.W. and Waples; The Common Wealth Teacher Training Study. Univ. of Chicago Press. 1929.

⑦ 學校의 施設이나 備品에 關係 있는 직무等이다, 要는 教師의 職무를 完수하는 新時代의 教師는 學生調整을 잘 할 수 있는 熟練性과, 教師의 원만한 人性의 具備와 좋은 敎職的 關係를 원만히 維持되어야만이 그들이 맡은 바 敎育의 使命을 完遂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教師의 資質

教師도 社會의 人間이므로 公民으로서의 理想的 資質이 요구되나, 또한 敎職으로서의 教師의 資質은 特殊한 面에서 問題되어야 한다.

教師의 資質로서 具體的인 特性은 時代, 社會組織, 地域, 學校種別, 被敎育者의 發達段階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理想的 資質은 어떠한 具體的인 人格의 特性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因子分析을 해 볼 必要가 있다.

敎育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敎育을 실지로 담당하는 教師는 더욱 중요하다. 敎育이 國家의 百年企業이라면 教師는 그 經營者이다.

여기에서 오늘날 大衆教師의 立場에서 좋은 教師로서의 共通分母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 우리가 志向하는 教師像 즉 民主市民敎育에 있어서 훌륭한 教師, 좋은 教師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훌륭한 教師의 特性을 알아 보아야 한다.

Witty P.A.는 2學年에서 12學年까지의 學生에게 “지금까지 第一 좋았던 先生님”이란 主題로 현상모집한 12,000通의 편지를 分析한 結果 “教師의 바람직한 資質”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 ① 民主적이고 協同的인 態度
- ② 個性에 대한 親切과 同情心
- ③ 忍耐
- ④ 多樣的 興味
- ⑤ 人品과 사람을 좋아하는 習慣
- ⑥ 公正과 公平性
- ⑦ Humor
- ⑧ 좋은 性質과 始終一貫한 行動
- ⑨ 學生들의 문제에 대한 興味
- ⑩ 융통성
- ⑪ 표창과 칭찬을 한다.
- ⑫ 敎授에 특별히 익숙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梨花女大, 敎育科 學生들이 「中高等學校·教師의 資質」에 關한 調査를 보면<sup>(29)</sup>

(29) 敎育평론, 1959. 6월호 pp. 28-29.

- ① 學生을 理解할것
- ② 親切한 가운데서도 엄격할것
- ③ 친절미가 있고 信賴할 수 있을것
- ④ 公平할것
- ⑤ 잘 가르쳐 줄것
- ⑥ 명랑 유쾌할것
- ⑦ 감정에 빠지지 않고 침착할것
- ⑧ 열심히 수업시켜 줄것
- ⑨ 學校를 쉬지않고 時間의 始終을 지켜 줄것
- ⑩ 활발하고 유모어를 잘 해주는 教師
- ⑪ 人事를 잘 받아줄것
- ⑫ 어떠한 質向도 잘 應해줄것
- ⑬ Sports 나 운동을 좋아하는 教師
- ⑭ 많은 學生들 앞에서 수치를 보이지 않은 教師
- ⑮ 넓은 教養을 가지고 人間的으로 존경할만한 教師等이다.

서울市 教育研究所가 主催한 校長講習會때 教師가 가져야 할 9個 項目을 들었는데<sup>(30)</sup>

- ① 社會에 대한 올바른 認識
- ② 社會改造에 對한 意欲
- ③ 教科目에 對한 精通한 知識
- ④ 높은 一般的 教養
- ⑤ 科學的 方法에 의한 兒童理解
- ⑥ 兒童의 良好한 取扱法
- ⑦ 校長·同僚와의 바른 民主的 對人關係
- ⑧ 市民과의 友好的인 關係
- ⑨ 솔직하고 明朗한 性格等이다.

지금까지의 調查報告 內容을 보면 教師는 學識에 앞서 원만한 人格의 所有者 즉 Pestalozzi 와 같은 高潔한 人格과 教育愛에 불타는 慈愛心을 갖고, 自己否定 自己出血, 자기포기으로써 被教育者의 生命을 發達시키는 희생적 정신의 所有者라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 知識의 量을 重視하거나 教授活動에만 置重하는 경향을 보이기 쉬운데 全人 教育을 指向하는 現今의 教師는 知識에 앞서 Stanz 孤兒院에서 몸소 體驗한 Pestalozzi 의 눈물의 生活과 같이 被教育者의 生活속에 묻혀서 그들의 참다운 벗이되고 참다운 生活의

(30) 白賢基, 獎學論, 서울:乙酉文化社, 1966, p.180.

案內者가 될 수 있는 貴重한 資質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 Ⅵ. 맺 는 말

Pestalozzi 를 一生동안 研究한 Spranger 도 그의 各著 “페스탈로찌의 思考形式(Pestalozzi's Denkenformen)에서 Pestalozzi 의 얽히고 얽힌 文章은 解得하기가 힘들며 또 그의 思考形式 自體도 「振動」을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stalozzi 研究에 햇수가 얽은 우리들이 原典의 求함도 어렵거니와 文脈의 잘못 파악으로 그의 본뜻을 더럽히거나 았았는지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심히 송구스럽기만하다.

Pestalozzi 의 一生을 社會에로 던졌고 그의 몸은 恒常땀으로 젖어 있었다.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에 이끌었다. 보복과 즐거움은 이것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Pestalozzi 의 生涯를 縮小시킨 한 文章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存在한다」가 아니고 그는 어디까지나 나는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가 教化의 中核場所로 생각한 것은 사랑과 信仰으로 다듬어지는 家庭이었다. 그는 家庭이야말로 教育의 永遠의 터전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現實社會에서 人類教化의 길을 모색하였다.

바로 여기에 Rousseau 토 부터 Pestalozzi 를 굽은 線이 그어지는 것이다. Rousseau 는 近代運命을 비판하고 그 改革을 믿으면서도 “Emile”의 教育方法이 가르키듯이 現實社會와 의 交涉을 끊고 一種의 유토피아의 方向으로 그 目標을 거두었다.

그러나 Pestalozzi 는 現實社會속에서 教育과 文化의 更生을 企圖했다. Rousseau 는 社會와 떨어져 생각했고 Pestalozzi 는 社會속에 파고 들었다.

Rousseau 는 家庭에서 한 人間을 보았으니 Pestalozzi 는 學校나 社會에서 움직이는 山人間을 보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는 말이 있다. 눈물로서 歷史 위에 씨를 뿌린 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는 Pestalozzi 일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가 죽고 140년이 지난 오늘 그가 뿌린씨를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教育의 課題를 지니고 있다. Socrates 는 “教育이란 영혼에 불을 질러 주므로서 人間을 일깨워주는 영위”라고 정의하였고, Dewey 는 “教育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再構成”(Education is constant reconstruction of experiences.)이라고 했다.

전자는 教育을 非連續的인 계기로 포착하려 하였고 후자는 教育을 連續的인 계기로 포착



하려 하였다.

그러나 「人格」이 概念없이 教育이 成立되지 않는다. 教育에 있어서의 비연속적인 계기와 연속적인 계기를 한몸에 지니면서 마치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教育論을 뽑아낸 것이 Pestalozzi 일 것이다.

모든 信仰運動이 「福音」에 되돌아 가자는 運動인것 처럼 오늘날 많은 課題를 지니고 있는 教育學徒 亦是 Pestalozzi 라는 「古典」에 되돌아 가서 그 理念을 찾아야 할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多幸히도 韓國에 많은 Pestalozzi 를 가졌었다. 島山 安昌浩, 南岡 李昇薰, 仁村 金性洙가 바로 이러한 Pestalozzi 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넋이 韓國教育에 되살아 나야겠다고 우리들은 믿는다.

그리하여 이름없는 많은 Pestalozzi 가 都市에, 農村에, 漁村에, 충만될 때 비로소 우리 韓國은 옛 슬기로우음을 되찾고 나아가 우리 겨레에 주어진 使命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Pestalozzi 를 접하고 그의 理念을 깊이 탐구하므로서 굳건한 教育의 礎를 닦고 바람직한 人間像을 찾아내야 할것이다.

Pestalozzi의 教育思想과 方法만이 모든 것을 낳고 모든 것을 키우고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다.

끝으로의 Pestalozzi 教育思想과 方法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1. A good home is the ideal educational institution for it is a center of love and active cooperation for the common welfare.
2. Since the larger society requires a range of education which the homes cannot give schools are necessary. In spirit and discipline, these should be modeled upon the good home. Personal love for the child must guide the teacher who stands in the parents' place. The discipline, though kind, must yet be strict and firm.
3.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all man's powers is the aim of education. We aim to produce men educated for manhood first of all and only secondly to train citizens and workers.
4. Because they have been most neglected and are in such desperate circumstances, the regeneration of the lower classes which rouses the will and vitalizes their powers, for charity only makes bad conditions worse.
5. Education is to be social and universal.
6. Instruction is to be "psychologized," that is, it is to be based upo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and the race. This involves the grading of pupils.

(31) Good, H.G.,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60 pp. 244-245.

the presentation of subject matter in harmony with the stage of growth, and the enlistment of the child's purposes and self-activity.

7. Instruction is to be carried on by Observation and by graduated activities, beginning with the simplest elements of each area or skill.
8. The curriculum must be expanded along practical and scientific lines. Although he did not use these words his concept was that of an "activity and experience curriculum."
9. Teaching is a skilled occupation and a moral vocation. Teachers can best learn their occupation and vocation in experimental schools which are themselves seeking means of improvement.

### 參 考 文 獻

- 1) 徐守賢, 페스탈로찌, (全南教育 1971. 2월호)
- 2) 金善陽, 教育史 講識, 서울: 載東文化社, 1964.
- 3) 金善陽, 金丁煥共譯, 페스탈로찌, 서울: 耕智社, 1968.
- 4) 金丁煥譯 隱者の 黄昏, 서울: 瑞文文庫, 1972.
- 5) 金丁煥, 페스탈로찌의 生涯와 思想, 서울: 博英社, 1974.
- 6) 金丁煥, 페스탈로찌의 教育哲學과 教育方法論研究 高麗大學校(人文論集)第十七輯, 1972.
- 7) 金丁煥, 教育의 哲學과 課題, 서울: 博英社, 1974.
- 8) 朴之榮, 페스탈로찌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55.
- 9) 文炯滿, 西洋教育史 大邱: 螢雪出版社, 1970.
- 10) 王學洙譯 페스탈로찌, 世界教育名著叢書 第一卷, 서울: 同刊行會, 1950.
- 11) 白賢基, 獎學論, 서울: 乙酉文化社, 1961.
- 12) 長田新, Pestalozzi 教育學, 東京: 岩教書店, 1968(第十版)
- 13) 松田義哲, Pestalozzi の教育思想, 東京: 協同出版 1966(第二版)
- 14) 致村敏雄 Pestalozzi の生涯,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1967.
- 15) Good, H.G.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co, 1960.
- 16) Wilds. The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N.Y. Rinehart Co. 1956.
- 17) Morf. H; Zur Biographie Pestalozzi's Errter Theil, 1868.
- 18) Spranger, E. Pestalozzi's Denkenformen, Heiderberg, Quelle und Meyer, 1966.
- 19) Pestalozzi, Lienhard und Gertrud, Errter Teil, 1781.

- 20) \_\_\_\_\_, Wie Gertrud ihre Kinder lehrt, 180.
- 21) \_\_\_\_\_, Abendstunde eines Einsiedlers. 1780.
- 22) \_\_\_\_\_, Schwangersang, 1825.
- 23) Chartes, W. and Waples; The Common Wealth Teacher Training Study, Univ. of Chicago Press, 1929.